

# “5·18 광주시민 자제·평정심 가장 놀라워”

### 5·18재단, 美 선교사 영문일지 37년만에 번역 공개 항쟁상황 날짜별 정리...美 정부 전달 최초 영문 기록

“광주시민은 민주주의나 정치 발전 같은 거창한 구호를 외친 것이 아니었다. 5·18민주화 항쟁은 광주시민을 향한 국가 폭력 때문에 발생했으며, 이런 야만적 행위를 눈감고 그냥 놔두는 안 된다는 의지의 표출이었다.”

5·18기념재단이 25일 1980년 5·18 당시 광주에 거주하던 미국인 선교사가 작성한 일지(사진)를 발굴해 번역·공개했다.

해당 선교사는 일지에서 광주시민의 시민정신과 자제력, 공동체적 결속 등을 높이 평가했다.

이 선교사의 이름은 기밀 해제되지 않았다고 재단은 밝혔다.

일지는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1월 광주를 방문해 5·18기념재단에 기증한 ‘5·18 관련 기밀해제 문서’ 중 일부다.

미 대사관측은 1980년 6월10일 해당 일지(5·18사태의 요약된 회고·Abbreviated Retrospect of the May Eighteenth Incident at Kwangju, Korea)를

접수, 기밀전문 형식으로 미국 국무부에 보냈다.

“광주 소요(騷擾)에 대한 거주자의 견해”(Insider's Account of Kwangju riot)라고 이름붙인 이 전문은 총 10개의 섹션으로 구성돼 있다. 광주항쟁과 관련해 기밀 해제된 문서 수천건 중 내용이 가장 긴 단일 전문이다. 작성일자는 1980년 6월 5~6일까지이다.

일지에는 당시 상황이 일자별로 일목요연하게 기록돼 있다.

“1980년 5월 15일 목요일, 학생들은 대규모 시위 시위를 벌였다”, “일요일 오후(5월18일), 공수부대원들이 무차별적으로 젊은 남성들을 때리기 시작했다”, “5월 19일 월요일, 공수부대원들이 가정집을 돌아다니며 젊은 남성들을 수색했다. 군인들은 시내 버스를 멈춰 세웠으며, 젊은 남성들을 끌어내린 뒤 구타했다” 등 직접 목격한 사실을 상세히 적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5·18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5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그는



특히 광주시민들의 높은 시민정신과 자제력, 공동체적 결속을 높이 평가했다.

“5·18은 공산주의 세력의 침투에 의한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 사상에 오염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듣기로는 당시 광주에 진입한 군인들은 공산주의 세력과 싸우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또 “5·18이 안겨준 가장 놀라운 점

은 광주시민들이 보여준 자제력과 평정심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 대사관이 이 문서를 본국으로 보내는 전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본 보고서 중 가장 균형잡힌 광주사태 기록이자 분석”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끈다.

재단은 이 일지가 당시 광주에 거주했던 미국인이 영어로 기록한 것으로 미국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된 최초의 광주항쟁 기록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 미국 고위관료들이 처음으로 접한 광주항쟁 기록으로 보고 있다.

문서를 번역·분석한 최용주 5·18연구소 비상임연구원은 “당시 5·18에 대해 ‘Kwangju riot’(광주 폭동)이라는 표현을 쓴 미 대사관은 이 일지를 통해 1980년 광주를 다시 보게 됐다”며 “미국의 대한(對韓) 정책 기류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큰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밝혔다.

한편, 재단 조사결과 이 일지는 미국 정부가 1997년 광주시에 제공한 기밀해제문서(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9권)에도 포함돼 있었지만, 재단은 이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7    해질 08:28  
해짐 19:41    달짐 21:44

### 오늘도 폭염

불쾌감이 높으므로 습도 관리 잘하세요.



### ◇지역별 날씨 (℃)

광주	구름 많음	25/34	보성	구름 많음	23/30
목포	구름 많음	25/32	순천	구름 많음	25/32
여수	가끔호리고 비	24/29	영광	구름 많음	25/32
나주	구름 많음	24/32	진도	구름 많음	25/31
완도	가끔호리고 비	25/31	전주	구름 많음	24/33
구례	구름 많음	23/32	군산	구름 많음	24/32
강진	구름 많음	24/31	남원	구름 많음	23/33
해남	구름 많음	24/31	혹산도	구름 많음	23/28
장성	구름 많음	24/32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동~남동	0.5~1.5	동~남동	0.5~1.5
남부	면바다	동~남동	0.5~2.0	동~남동	0.5~2.5
남해	남부	북동~동	0.5~1.5	북동~동	1.0~2.0
서부	면바다(동)	북동~동	1.0~2.0	북동~동	1.5~2.5
	면바다(서)	북동~동	1.0~2.0	북동~동	1.0~2.5

###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9:26	04:21
	21:33	16:25
여수	04:54	11:06
	17:03	23:33

### ◇주간 날씨

27(목)	28(금)	29(토)	30(일)	31(월)	8/1(화)	2(수)
23/34	24/33	25/32	25/33	25/32	25/32	25/32

### ◇생활지수

	경고
	식중독
	낮음
	자외선
	매우높음
	피부질환

## 고령에 격무...광주 시내버스 기사 환경 열악

### 10개 버스회사 비정규직 기사 하루 평균 16시간 운전

### 대부분 60대이상...심혈관질환 발병 운전 중 사망도

광주시내버스 고령 비정규직 운전기사들이 시민 안전을 담보로 '하루 평균 16시간 근무'라는 살인적인 운전 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60세 이상으로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졸음 등 각종 사고 위험은 물론 노인에게 빈발하는 심혈관, 당뇨 등 다양한 질환이 운전도중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4일 화순군 화순읍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광주시내버스 운전기사 김모(66)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차량에는 승객 10여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버스가 정차하고 있어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당뇨를 앓고 있었으며, 사망 원인은 저혈당으로 인한 쇼크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비정규직 운전기사인 김씨는 광주에서 출발해 화순 능주역을 돌아 다시 돌아오는 노선(왕복 2시간40분 소요)을 하루 5차례 운행했다. 김씨는 하루

평균 13시간씩 운전한 뒤 다음날은 쉬는 격일제 근무자였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운수업은 1주일에 1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업종으로 포함돼 있어 숨진 김씨처럼 격일제로 근무하는 방식이 법 위반 사항은 아니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광주시내 10개 버스회사에 소속된 비정규직 버스기사 대부분은 첫차 출발 시간인 오전 6시부터 막차 운행 종료 시간인 밤 10시30분까지 하루 평균 16시간씩 일한 뒤 하루를 쉬는 격일제 근무에 나서고 있다.

낮 12시를 기준으로 오전 근무자와 오후 근무자가 교대를 하는 정규직과 1일 근무량을 비교했을 때 두배 가량 더 일하는 것이다. 또 저선버스는 기점부터 종점까지 1회 운행에 따른 휴식시간은 20~30여분에 불과하지만 정소를 하거나 화장실을 다녀오기에도 빠듯하다.

한 시민은 “60세 넘는 어르신들이 하루 평균 16시간씩 운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비정규직 운전자에 대한 인권적인 차원에서라도 근무 여건이 개선돼야겠지만,



광주시내버스 비정규직 운전기사가 격일제로 하루 16시간의 고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만 60세 이상 고령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광주도심을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시내버스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시내버스 운전자 2363명 중 비정규직 운전자는 780명으로 33%에

이른다. 비정규직은 주로 비좁고 곡선 코스 등이 많아 운전이 까다로운 장거리 코스 중심의 지선버스(62개 노선·414대)를 운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오존 청정지역 '광주'

### 전국 올 229회 발령에도 全無

전국이 역대 최악의 오존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광주는 올해 단 한 건의 오존경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에어코리아와 광주시환경보전연구원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오존경보 발령 횟수는 229회 발생했다. 지난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오존예-경보제에 따른 오존 경보제도 2012~2017년 현재까지 광주에서는 한차례도 발령되지 않았다.

광주는 대기 중의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

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를 광주시환경보전연구원에서 발령한다.

오존은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자외선을 만나 생성된다. 주로 무더운 바람이 없을 때 오존이 발생한다. 호흡기, 피부, 눈 등에 손상을 주며 두통, 기침, 눈 자극, 폐 기능 저하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환경보전연구원 관계자는 “수도권보다 광주가 공장과 차량 등 화합물 배출원이 적어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오존농도는 낮다”고 설명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광주 마지막 비전향장기수 송환 추진위 출범

(서옥렬씨)

광주·전남의 마지막 비전향장기수 서옥렬(90)씨의 북한 송환을 추진하는 위원회가 출범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 25일 광주YMCA에서 ‘장기구금양심수 서옥렬 선생 송환추진위원회 결성기자회견’을 열었다.

추진위에는 6·15 공동위 광주본부,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광주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광주전남 평화와통일여는사람들 등 시민단체와 정당 20여 곳이 동참했다.

추진위는 “서옥렬씨는 장벽이 가로막힌 남북을 오간 혐의로 29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고문으로 한쪽 눈이 멀고 생의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선생이 북쪽의 가족 품에서 평온히 눈을 감을 수 있게 정부는 인간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또 “이념과 사상의 장벽을 잠시 걷고 국민 한 사람의 작은 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의 아량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본 자연장은 아름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회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